제 4 8 호 【루계 제 2 6 7 4 호】

주체 1 1 0 (2021)년 1 1월

음력 10월 23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판문점이 길이 전하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념원

해마다 11월이면 사람들은 뜨거운 추억의 마음을 판 문점에 세워본다.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판문점에 새기신 애국헌신의 발자취 와 더불어 력사의 그날은 겨레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 는 금문자로 새겨져있고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념원은 전체 조선민족을 통일성업실현의 한길로 힘차게 고무 추동하고있다.

빨찌산의 아들, 최전방에 나가시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에는 류달리 흰 안개 가 서리였다.

세상사람들속에 《흰 안개 전설》로 전하여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바로 이날과 더불어 새겨진것이다. 당시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 쟁의 방아쇠가 당겨질지 모 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여 있었다.

평화냐, 전쟁이냐를 론하 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조 선반도 남쪽과 그 주변에서 는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을 기습타격하는 실전으로 넘어 갈수 있는 대규모전쟁연습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었다.

미국을 피수로 한 제국주 의련합세력은 《북조선의 붕 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들며 압살의 칼을 빼들고 덤벼들 었고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 세력은 《천재일우》의 기회라 며 《흡수통일》의 야망을 실 현해보려고 획책하였다.

극한점에 다달은 랭전이 열 전으로 번져지는것은 거의나 피할수 없는 시간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때 민족자 주, 평화통일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화와 전쟁, 통일과 분렬의 첨예하 고 날카로운 량극이 서로 직 접 대치되고있는 판문점을 찾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인담대 한 판문점시찰은 빨찌산의 아들, 천출명장만이 내릴수 있는 대용단인것으로 하여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에게 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안 겨주고 반통일세력은 공포로 전률케 한 력사적인 쾌거 였다.

여러 나라 통신, 방송들 이 앞을 다투어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현지시찰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였고 세 계군사평론가들이 저저마다 장군님의 판문점현지시찰의 의미를 나름대로 평하였다.

우주공간은 삽시간에 《판 문점시찰》, 《판문점》이라 는 고유명사를 실은 전파로

세계의 저명한 정치군사평 론가들은 한결같이 장군님 의 판문점시찰이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죄하고 얽어맨것으로 하여 그이의 무비의 담력을 아로새긴 특 기할 사변》이였다고, 《판 문점시찰은 그자체가 제국주 의침략세력과의 대결전에서의 대승》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당시 판문점에 나 와있던 한 미군고위장교는 《김정일장군의 판문점시찰 은 우리의 심장에 칼을 박 았다.**》**, 《당장 발밑에서 북조선의 원자탄이 터지는

욕의 운명이였다.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판문점초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위 대 한 김정일 장 군 님 [주체 85(1996) 년 1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인 것같은 충격을 받았다. 》고 족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전 통일의 밝은 해살을 뿌려주 담대한 배짱과 담력으로 민 쟁의 검은구름을 밀어내시고

분렬의 상징을 통일의 상징으로

일 떠 세 우 자 !

기나긴 세월 분렬의 상징 으로 되여온 판문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을 통일의 상징으로 겨레의 마음속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여주시였다.

판문점시찰의 그날 장군님께서 는 청신한 대기속에서 숭 엄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깊은 감회속에 친필비를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친필비준하신 력사적문건이 조국통일과 관련 한 문건이였다고, 수령님께서 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전 체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 을 안겨주시려고 분망한 시간 을 보내시면서 조국통일을 위 한 문건에 친필을 남기시였다 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고 굳은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 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이 것이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라고 말할수 있다

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판문각 3층로대에도 오르시였다.

불과 수십m앞의 남쪽땅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여기 서 서울까지는 불과 40km밖 에 안된다고, 평양까지 가는 거리의 4분의 1도 못된다시며 조국통일이 안되다보니 지금 은 여기서 부득이 멈춰서게 된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끊어진 민족의 혈맥 과 지맥을 다시 잇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아가는

조국통일시대를 기어이 열어 놓으시려는 확고한 결심이 맥 박치고있었다.

일찌기 민족수난의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 땅 보천보의 밖하늘에 홰불 을 높이 추켜드시여 민족재 생의 앞길을 밝혀주신것처럼 장군님께서는 민족분렬과 비 극의 상징 판문점에 통일의 서광과도 같은 봉화를 지펴 올리신것이였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감으 로,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시 고 누구나 휴식을 즐기는 일 요일에도 통일애국의 장정을 걸으신 어버이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 은 통일러명을 부른 장엄한 통일뢰성으로 삼천리를 진감

그후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 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 자》등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을 발표하시여 겨레의 가슴속 에 자주통일의 억센 기둥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였다.

11월, 마가을의 찬바람에 나무가지는 앙상해지고 잎새 는 떨어져도 분렬의 동토대를 녹이시는 장군님의 통일애국 의 열기는 민족이라는 거목 에 통일의 봄싹을 틔우고 단 합의 꽃을 피웠다.

오늘도 울려오는 판문점의 메아리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 막나날까지 오로지 민족의 숙 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 그이께서 통일성 업실현을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해마다 11월이 오면 우 민족은 지나온 력사 와 더불어 민족의 힘, 국 력에 대하여 되새겨보군

1905년 11월 17일. 이 날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 치욕의 한페지로 기록되여있다.

당시 일제는 수많은 침략무력 과 대포를 끌고와 황궁을 겹겹 이 포위하고 위협하면서 조선봉건 정부에 나라를 내놓을것을 강박 하였으며 망국적인 《을사5조약》 을 날조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되였다. 힊없는 민족이 당해야 했던 치

당시 포악한 일제는 군함과 대 포를 앞세우고 달려들었지만 우리 에게는 화승총마저 변변한것이 없 었다. 그러니 침략자들에게 맞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 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나라

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를 빼앗겼다. 그때로부터 40여년 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노 예살이를 하면서 당한 불행과 재 난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 그러던 우리 민족이 한세기가 지난 오늘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힘을 갖추게 되였으니 지금도 사람들은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4년전의 11월 29일

> > 을 잊지 못하고있다.

이날 우주만리로 힘있게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미싸 일 《화성-15형》을 바라보 며 온 세계가 주체조선의 불 가항력적인 힘을 똑똑히 보 았다.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 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싸일무기체계를

보유함으로써 공화국은 자위

의 국방력을 다시한번 힘있

게 과시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년간 에만 하여도 공화국은 국방 는 눈부신 발전면모와 무궁

무진한 잠재력을 과시하 하고있다.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 항미싸일시험발사, 극초음 속미싸일 《화성-8형》시 험발사, 반항공미싸일시험발사 등

무장장비개발소식들과 조선로동당 창건 76돐을 맞으며 진행된 국방 발전전람회 《자위-2021》의 전람 회장에 집결되였던 최근 5년간 개 발생산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기재 들은 강력한 조선의 국방력을 남 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공화국무력의 상대는 그 어떤 특정한 국가가 아니며 전쟁 그자체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공화국이 끊임없 이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는 위력 한 자위의 억제력이다.

이 위대한 힘은 제국주의의 침 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11월은 말해준다. 탁월한 수령 을 모실 때 강대한 힘을 지닐수 있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도 최상 공업분야에서 세상을 놀래우 의 경지에서 빛날수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김 영 진

千岁台의 필 린 친 어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대표부에 도착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부터 찾 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숙연히 서계시였다.

생을 마치시기 하루 전날에 친히 조국통일관계문건에 마지막으로 쓰신 존함과 날자 가 수령님필체 그대로 새겨져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앞에서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통일각에 들리시였다.

통일각의 내부를 일일이 돌 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일군들에게 그 건설유래 와 거기에 깃들어있는 가지가 지 이야기들을 감회깊이 들려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친필비앞에 이렇게 서니 생 각되는것이 많다고 하시면 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 일위업실현에 기울이신 그 많 은 낮과 밤을 감회깊이 되새 겨보시였다.

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심혈 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께서 는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전 체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 을 안겨주시려고 분망한 시간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을 보내시면서 조국통일을 위 위대한것이였다.

한 문건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시 고 순직하시였다고,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력사적 인 친필에는 수령님의 강의한 통일의지와 신념이 함축되여있 고 조국통일에 대한 수령님의 확신이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 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 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

비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 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 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 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 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이 집

장군님께서는 《통일각》이라 는 이름이 좋다고, 통일이 되 기 전에는 통일을 념원하는 뜻에서 좋고 통일된 다음에 는 통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 을 둘러보시며 통일각은 진짜 멋쟁이집이라고 거듭 만족을 있다. 표시하시였다.

참으로 통일각은 민족의 통 일념원과 의지를 체현하고있 는 뜻깊은 집으로, 누가 진 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고 누가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을 직접 목격하고 만천하에 웨 치는 력사의 증견자로 되고

본사기자

우주과학기술로론회 - 2021

성황리에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얼마전 우주과학기술토론 회-2021이 조선과학기술총련 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진행 되였다.

Z

토론회는 조선로동당과 공 화국정부의 평화적우주개발정 책을 높이 받들고 우주개발부 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 룩한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보급일반화하여 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동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토론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을 비롯한 과학교육기관들의 과 측기술, 각종 우주용재료개발

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인공지구위성분과, 우주재 료 및 요소분과, 우주관측 및 기초과학분과, 응용기술분 과로 나뉘여 진행된 토론회 에서는 각 단위들이 제출한 190여건의 론문들을 심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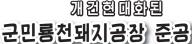
하였다. 위성과 그 부분품들의 제작 및 시험기술, 위성항법과 궤 도 및 자세조종기술, 합성개 구레이다 및 위성용촬영기의 개발기술과 위성통신, 지상관

기술 등 인공지구위성의 개발 과 조종, 관측 및 통신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긴절한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 한 론문들은 전문가들의 관심 을 무았다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1 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 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국제적 인 노력이 적극화되는데 부 응하여 공화국의 우주개발계 획을 확신성있게 추진하고 나 라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였다.

加包包四郎包 구성닭공장 준공

Ш





H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여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 시 이룩하고 강성번영의 새 민족 사를 개척하시기 위하여 걸으신

역 적 때 당 의

력으로 조선반도에 드리운 재난 의 검은구름을 밀어내고 뜨거운 민족애와 고결한 인덕으로 북남 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은 못잊을 나날들도 아로새겨

전 쟁 망 동 을 단숨에 제압한 최고사령관명령

2015년은 조국해방 70돐이 되

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 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 을 마련하는 문제, 체제대결이 아니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실현하는 문제, 대화와 협상, 교

환, 대변혁을 가져오는 문제 등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지침들을 밝혀주시였다.

온 민족은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와 애국의 의지를 받들어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 국통일운동사에서 새로운 대변혁 을 일으키기 위한 거족적인 장정 에 펼쳐나섰다.

하지만 남조선의 박근혜매국도 당은 상전의 조종과 적극적인 지 원하에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 게 써나가자는 공화국의 제의에 도전하여 새해 정초부터 그 무슨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북남관 4대작전원칙》을 떠들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 《맥

스 썬더》를 비롯한 광란적인 북 침전쟁연습들로 세상을 소란케

특히 조국해방 70돐을 계기 로 내외에서 조선반도의 정세안 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 느때보다 높아갔지만 군사분계 선일대에서 8월 10일부터 《대 북심리전》 방송을

8월 17일부터는 미국과 함께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벌려놓다 못 해 8월 20일에는 신성한 공화국 령토를 향한 특대형도발까지 감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

남조선군사불한당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하에서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전선대련합부대 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 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 는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

백두령장의 명령을 높이 받들 고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섰 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 보도가 전해진 후 하루동안에 100여만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은 최고의 격동상태에서 도발자들을 무자 비하게 짓뭉개버릴 만단의 전투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앞에서 도 발과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던 호전세력은 공포와 전률에 휩싸 였으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은 서리맞은 호박잎신세 가 되고말았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혜안 의 예지를 지니시고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 백승의 군력을 천 백배로 다져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 불멸의 로고가 안아온 통쾌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중대조치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결한 인덕으로 조선반도에 드 리운 전쟁의 불구름을 가셔내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북남관 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 으시기 위한 중대조치들도 적극

남고위급긴급접촉을 제기하였으 며 이에 따라 판문점에서는 북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대 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 모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 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열리고 써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 의 위기는 타개되고 민족의 머리 우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 이 가셔지게 되였으며 조선반도 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수호될 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발표된것은 첨예한 군사적긴 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번 접촉결과 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 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 층 인민들은 《북의 령도자께서 접촉을 열도록 하시여 첨예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북의 고위급긴급접촉제의로 전 쟁위험이 가셔지고 관계개선의 밀거름이 마련되였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참으로 벼랑끝까지 치달았던 으로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 애국의 결단이 가져온 민 족사적대공적이였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뚜렷한 민족의 진로를 제시하

방황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의 모습에서 두 기자는 창





준전시상래를 선포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받들고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섰다.(2015년 8월)

학월한 사상기론의 거장

김정일애국주의를 애국의 기치로 내세우시여

공화국인민들을 참다운 애 국의 길로 이끄시는분이 바 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기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 인민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 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 을 안겨주시고 전체 인민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 국의 구슬딲을 바쳐나가도록

26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 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 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조국의 仄┣》에서 김정일애국주의에 강화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하 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 발휘하고있다.

로작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 사회주의조국을 해치려는 원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 명제품, 명상품들을 생산하 회주의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 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 장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헌신 기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어 주의는 사람들을 참된 애국 ▌잘 말해주고있다. 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 쟁정신, 사회주의조국의 륭 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기 디서나 힘있게 벌어져 주체가 자로 키우는 고귀한 정신적 👤 그 사 진 은 위 대 한 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 성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 공장, 민족적자부심을 가 유산, 투쟁과 전진의 힘있는 <mark>김일성주석께서 주체34</mark>(1945)년

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 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 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 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 라고 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 화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나 원수님께서 라와 민족의 운명을 사회주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식으 로 주장하는 애국의 사상들

하지만 사회주의적애국주의 는 인민이 주인으로 된 참다 운 인민의 조국, 위대한 수령 을 높이 모시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이 담보되는 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애국주의이다.

순간의 멈춤도 없이 헌신분투 하신 한없이 숭고한 애국인것 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

우리 공화국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 되게 하 시려고 한생을 깡그리 다 바 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 하고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 김정일애국주의로 명명하시 고 사회주의건설의 고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 사상정신적유산으로 빛내여

지금 김정일애국주의는 공 **김정일**애국주의가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 거대한 위력을 음에 새기고 투쟁하는 길에 ▌을 맞이한 우리 겨레가 해 었다.

애국정신이다. 사회주의조국 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가 더욱 드높아진 속에서 자 여나고 일심단결도 더욱 튼 ▮ 나아갈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 체의 자원과 기술로 질좋은 튼히 다져지고있다.

당당히 내놓을수 있는것이여 야 한다는 높은 목표를 내 과 마을을 살기 좋은 락원으 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진정 공화국에서 김정일애국 이에 대해 한장의 사진이

직건설과 애국활동을 성과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자욱자욱은 어버이수령님의 🖁 당시 미국의 군정통치실시

로, 세심한 스승의 손길로 🖁 올렸다.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 어느 길로 나가야 하며 우리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 들은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

이때부터 총련에서는 사업 • 행하여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는 빛처럼 가슴에 스며들었 깊은 화폭을 담은 사진은 깊 는 오늘 총련앞에는 각계각 롯한 여러 기회에 총련지부 라고 할수 있다. 살고있는 일본전국을 다 돌 부를 중심으로 모든 애국과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화국인민들이 벌리는 창조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마 그처럼 열망하던 조국해방 위대한 령수가 계시였다.

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 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헌 애국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지게 하는 애국공장들이 나 무기로 되고있다. 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 신적복무정신이 사회주의적애 위한 길에서 그 어떤 만족도, 날이 늘어나고있다. 하나의 김영호 문사의 두 기자를 몸소 만나

대한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에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무 마찬가지로 해외교포운동 그이께서 생각하시는 총 도 바로 총련지부일군대회에 🕻 선을 넘어 김일성주석께 찾 주요지부의 위원장들을 중앙 거운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 도 일정한 단위를 거점으 런지부는 바로 이러한것이 보내주신 축전이였다. • 아온것은 단지 기자로서의 __ ·· -참으로 총련지부가 걸어온 : 사명감때문만이 아니였다.

《지부는 동모들의 생활 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것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 • 와 반동들에 의하여 혼란된 의 자욱자욱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 을수 있는 해답을 바라는 남 축행사들에 참가하고있었다. 적거점입니다. 지부가 어떻 선인운동의 가장 적합하고 돌리시고 귀중한 가르치심 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 • 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효률적인 지역단위라고 말할 을 주신 일을 추억하시는것 대로 지부를 강화하는데 전 • 을 안고 주석님을 찾아온 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u>으</u> 🖁 김일성주석께 이렇게 말씀을

어세우며 조성된 정세와 변 요하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 모든 조건을 가장 훌륭히 갖 주신 어버이수령님. 본사기자 본사기자 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굳게 여 기를 펴지 못하고 과연 본사기자 한일 혁

서울신문사의 기자들은 벅

서 조선의 국력을 더욱 드높 방후 과연 어느 길로 갈것 조선이 나아갈 길, 민족 창한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 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조국 - 공화국인민들의 애국열의 이는 주체무기들이 현속 태 | 인가 모대기던 때에 민족이 이 나아갈 길을 그처럼 즉석 았었다. 하기에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서울로 오시 민 여 남조선인민들을 참다운 길로 인도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군님께서 서울로 언제쯤 오실수 있겠는가고 무 랍없는 청을 올리기도 하였 고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신 그이의 영상을 신문에 모셔 온 남녘인민들이 우러러보게 하려는 마음에서 장군님의 사진을 한장 주시였으면 하

는 간절한 소망도 아뢰였다. 그후 《서울신문》에는 민 족의 영웅이시며 구세주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상이 정중히 모셔지게 되였고 그 영상을 보고 또 보며 남조선 인민들은 그이께서 밝혀주신 민족의 진로인 통일조선을 일 떠세우는 그 길에 한결같이

펼쳐나섰다. 해방후 첫 기슭에서 민족 이 나아갈 길을 명시하여주 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평생 분렬된 조국의 비극, 갈라져 사는 겨레의 아픔 을 끝장내시려 획기적인 통 일강령들을 내놓으시여 민 족이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는 밝은 앞길을 열어 주시였다.

세월은 멀리 흘러왔지만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 의 가르치심이 어둠을 밝히 의 두 기자를 만나주시는 뜻 은 추억과 함께 그이께서 가리 명철하게 밝혀주시며 그러자 각양각색의 주의주장이 키신 그 길에 조국통일도, 민 층의 광범한 동포군중을 애 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 이렇게 놓고보면 지부는 아본셈이라고, 조국통일을 업을 수행하는데로 력량을 변면 먼저 각계각층의 모든 애 란무하고 외세의 탄압과 반 족만대의 부강번영도 있다는 국애족의 기치밑에 굳게 묶 는 리유도 지부가 그토록 중 동포군중교양과 애국사업의 위해 일을 잘하자고 고무해 집중하게 되었다.

위원으로 선거하는 획기적조 다고 이르시고나서 이렇게 로 하여 조직전개되여야 조 였다. 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선 교시하시였다. 최근 총련이 여러가지로 어 러운 조건에서도 일을 잘 하고있다고, 특히 지부위원 장들이 신심을 가지고 동 포들과의 사업을 잘하고있 다고 치하하시며 자신께서

한다고 하시였다. 을 남달리 믿으시고 그들에 지역적거점! 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아낌 를 마련해주시겠다는것이 아

들이 그해 4월 조국에 와서 때 애국사업의 기본단위이 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5돐 경 더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 총련지부로 말하면 재일조 련지부사업에 깊은 관심을

을 만나 기념촬영을 해주려 우되게 됩니다.》

이번에 시간을 내여 그들 총련의 전반사업이 크게 좌 수 있다. 총련지부에서는 동 이였다. 포군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우 일찌기 조국에서 군이 중 총련지부위원장들의 사업을 🕯 《장군님, 앞으로 조선은 동포생활과 애국활동의 기 며 애국사업을 조직하고 지 요하듯이 총련에서는 지부가

언제나 총련지부위원장들 본단위! 재일조선인운동의 휘하는 전임일군들이 있으며 중요하다시며 지부강화를 위 조청, 상공회, 녀맹, 청상회 한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 가슴가슴은 위대한 령도자 • 겠습니까?》 이 가르치심은 지부의 위 등 총련산하단체들의 지역조 주신 수령님, 어느해 4월의 의 슬하에서 해외교포운동 🖁 그들의 모습에서 갈길 몰라 없이 베풀어주시는 그이께서 치와 역할에 대한 명쾌한 해 직들이 꾸려져있다. 각계각 오찬회때에는 주탁에서 멀리 의 또 하나의 보검을 받아 🖢 방황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그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 계도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 는 곳까지 몸소 다가가시여 들었다. 하여 자신께서 총련과 재일 지고 동포군증과 직접 대상 100명이 넘는 그들의 잔을

서는 지부의 역할을 높일데 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 사실 모든 사회적운동과 있다. 보내신 생애의 마지막축전 :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분계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 총 의 자욱자욱이였다.

주체105(2016)년은 우리 서 또 한차례의 력사적인 리정표가 마련된 뜻깊은 해

뜨거운 인민사랑과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온 겨레와 제7차대회에서 조국통일의 앞 길을 환히 밝히는 획기적인 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신

통일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

하신 주체적통일로선!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

야말로 통일위업실현의 가

장 정당하고 유일한 길이라

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받

들어 우리 대에 반드시 조

국을 통일하시려는 절세위인

의 확교한 통일의지와 뜨거

운 민족애가 그대로 맥박치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우

리 나라가 분렬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

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을 내

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

주체적통일로선을 불변의 침로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 공화국에서 민족자주위업수 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던 력사적시기에 소집된 뜻깊은 대회였다.

당대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당의 강령 과 규약을 수정보충하며 당 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는 조선로동당의 최고지도기관 이다.

아는것처럼 인민대중 다 의 자주위업이 승리하자면 옳바른 로선에 기초해야 한 다. 그것은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로선수립이 승 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 문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옳 바른 로선이 있어야 조국통일 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 족주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조국통일위 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 갈수 있는것이다.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당대회장으로 쏠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당대회의 높은 연 단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징

결 징 병

0

Т

<u>0</u>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 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 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통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 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 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 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당한 로선이다.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

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

였다.

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 일로선과 방침은 남조선인민 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 들과 해외동포들을 비롯하여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 온 겨레의 커다란 반향을 불 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러일으켰다.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 외에 있건 조선민족의 피줄 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누구 나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 대한 방안이다.

-조선로동당의 통일로선 은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 가 집대성화되여있고 실천속 에서 그 생활력이 확증된 통 일에로 가는 가장 곧바른 길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

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불멸

이것은 통일위업실현의 출이였다.

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 러러 터치는 온 겨레의 다 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의 분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방략제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 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 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 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 적으로 구현되여있다고 하시 면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런방제실현, 이것

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 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 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 이라고 하시였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 장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 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 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 갈수 있다. 민족자주가 조국 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렬 과 망국의 길이다. 이것은 민 족분렬의 70여년력사가 보여 주는 뼈저린 교훈이기도 하 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갈

적평화통일의 근본문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 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 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 조 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 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할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이룩되게 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 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 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

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민

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자

주통일위업실현의 전제를 마

련해나가는 정의로운 애국투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져온 서로 다 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 고 누구도 자기의것을 양보하 려 하지 않고있다. 우리 민족 의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 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 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정

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 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런방제실현!

참으로 통일을 민족의 지 향과 리익에 맞게 가장 곧바 르게 이룩할수 있는 너무도 정정당당한 통일투쟁의 방략 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 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 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데 대한 문 제, 북과 남이 군사적긴장상 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 해나갈데 대한 문제, 민족공 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 관하게 리행해나갈데 대한 문 제,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 런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 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데 대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 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획기적 인 조국통일로선과 투쟁방침 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겨 레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 심과 락판을 가지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 갈수 있게 되였다.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

해낼 일도 없다. 조국이 통

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군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공화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 변하는 정세의 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망에 맞게 민족의 대단결 과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제 안들을 련이어 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 79(199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1940년 대에 시작된 민족분렬이 1990년대에 들 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자주화 의 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허용할수 없 는 력사의 비극이라고 하시면서 북남 사이의 장벽을 마스는 문제를 기본으 로 하는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내놓 으시였다.

이 방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 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콩크리 트장벽을 허물어버리는것이였다.

민족의 분렬과 대결의 상징인 콩크리 트장벽을 그대로 두고 통일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사실상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원한의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은 북남사이의 긴장과 대결을 끝장 내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수 있게 하 며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 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의

제안에 《장벽이 없다.》고 하면서 기 존대화의 재개와 《3통협정》의 체결 등을 고집해나섰다.

이에 대처하여 공화국정부는 1990년 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부, 정당대표들의 제2차련합회의를 열 고 남조선당국이 보내온 회답편지를 분석검토하고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 과 새로운 적극적인 대책을 담은 편지 를 남측에 또다시 보내였다. 1990년 2월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은 남조선 《통일원》 (당시) 장관에게 전 화통지문을 보내여 남조선당국이 군사 분계선 남측지역일대에 콩크리트장벽이 없다고 고집하는 조건에서 장벽의 유 무를 현지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로동

자, 농민, 청년학생참관단을 보내줄것 을 제의하면서 장벽을 수록한 필립자료 를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남측은 《정치선전》을 운운하며 끝내 받아가 는것을 거부하였다.

3월 22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정부, 정당대표협의회에서는 정 부, 정당대표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따 적극적인 제안을 담은 편지를 공화국정 정당대표협의회의 명의로 남조선당 국자들에게 다시금 보내였다.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조국통일위 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구상을 무르익히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 79(1990)년 5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 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 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 제시하시였다.

조국통일5개방침은 온 민족의 절박 한 념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위 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긴 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 분 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 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조국의 자주적평화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 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 할데 대한 문제들을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 일5개방침은 통일의 주체인 전체 조선 민족의 힘과 지혜를 총발동하여 조국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 관되여있으며 민족의 통일념원과 정세 발전의 추이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요한 민족분렬의 참혹한 비 극은 장장 70여년이나 이어 져오고있다.

이 기나긴 나날 우리 겨 레는 언제 한번 통일에 대 하여 잊은적이 없고 조국통 일을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족 의 절절한 소원인 조국통일 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밖은 깊어도 새날 이 오듯이 조국통일의 아침 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 다. 통일은 민족사의 필연이 고 대세이다

다 아는것처럼 조선민족 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민족이며 한강토우에 서 반만년의 오랜 력사적기 간 한피줄을 순결하게 이어

온 단일민족이다. 이 지구상 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이 있지만 조선민족처럼 대대 로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 을 이어오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그

런 슬기롭고 용맹한 민족은 없다. 이러한 민족이 계속 둘

큰 비극은 없을것이다.

비록 민족분렬이 70여년동 안이나 지속되고있지만 반만 년의 유구한 력사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한순간에 지 나지 않는다.

갈라져 산 70여년이 함께 살아온 5천여년의 자랑찬 력 사를 지워버릴수 없다는것

우리 나라의 통일은 땅에 몰아치는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내고 온 겨레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강토우에 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룩되여야 한다.

쟁위험이 가장 높은 최대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항시적으로 대치되여있

또한 침략적인 외세의

북과 남사이에 방대한 무력

첨단무장장비들이 남조선에

수시로 반입되고 북침을 노

린 합동군사연습이 뻔질나

열점지대로 되고있다.

느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

말그대로 우리 겨레에게 어

게 한 군사적긴장과 전쟁위 험으로 점철된 나날이였다.

롭고 번영하는 래일이 앞당

겨지게 된다는것이 오늘 온

겨레의 목소리이고 념원이다.

번영과 행복한 미래에로 나

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무궁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게 벌어지고있는것으로 하

여 조선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로 되고있다. 민족분렬의 지난 70여년은

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 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 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 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군 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 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 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 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

의의 강국! 바로 이것이 통일된 우리 나라의 모습이고 민족의 밝 은 미래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인사를

조국의 통일독립을 투쟁을 멈추지 않던 류영준 선생에게 은혜로운 태양의 빛 이 비쳐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선생에게 평양에서 열리는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도록 초대장을 보내주신것이였다.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영광

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였다 는 환희와 함께 조국의 통일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력 사적인 회의에 참가하게 된 다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선생은 초대장을 받아안자마 자 남먼저 북행길에 올랐다. 평양에 도착한 선생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환대와 극진한 사랑 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자기를 력사적인 회의의 주석단에 앉도록

배려해주시였던것이다. 그는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랐다. 주석단성원들가운데 녀자는 자기 한명뿐이였다.

이에 대하여 생전에 그는 늘 이렇게 회억하군 하였다. 《결코 그때 내가 잘나서 영광스러운 주석단성원으로 된것이 아니다.

남조선녀성들을 혁명의 한 쪽수레바퀴를 떠메고나갈 믿 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동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 하고있는 모든 녀성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다. …》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 의가 끝난지 얼마 안되였던 주체37(1948)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영준 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민주녀 성동맹 일군들을 몸소 만나

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 까이 뵙고싶은 마음이 간절 하였던 남녘의 녀성일군들은 바라고바라던 소원이 성취된 기쁨으로 하여 높뛰는 가슴 을 진정할길 없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외세와 반동파 들의 파쑈적폭압에도 굴하 지 않고 녀성들의 사회적해 방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 하여 헌신분투하여온 그들에 게 사의를 표하시면서 남조 선녀성들의 의로운 애국투쟁 을 높이 평가한다고,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온갖 방해책동 을 물리치고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뜻 깊 은 그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조선민 주녀성동맹앞에 당면하게 나 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구체 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외세와 반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일군들

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대로 일을 잘해나갈 결심을

선생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장소들마다에서 북조선 의 현실을 알려주면서 전민족 이 따르고 받들어야 할분은 김일성장군님뿐이시라고 격정 에 겨워 연설하군 하였다.

압책동이 더욱더 우심해질 때에도 그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면서 사람 들에게 항일의 전설적영웅이 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 야기로 희망과 신심을 안겨

1949년 6월 뜻깊은 조국전 서 긍지높고 보람넘친 생활 을 하게 되였다.

여생을 편히 지내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오랜 세월 수난에 찬 길을 걸어오던 평범한 녀성을 민족앞에 떳떳이 내세워주고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여주 신 한없이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이였다.

하기에 류영준선생은 1972년 9월 어느날 자기의 한생을 총화하며 조카와 그 아들딸 들에게 이렇게 말

《내가 여든두살 이면 오래 산셈이다. 쉰여덟살까지는 일제와 미제의 통 치아래서 살았고 그후 스물네해동안 을 수령님의 품속 에서 살았다.

하였다

내 일생에 동양 삼국을 넘나들며 이름있는 사람들 도 만나보고 독립 운동자, 박사, 영 응이라고 하는 별 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이 세상 천하에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다. 수령님께서 지지리 고생만 하던 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영예를 안겨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내 말을 잊지 말 고 수령님께 꼭 충성을 다하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렬 사들속에서 류영준선생은 오 늘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있다.

공화국은 진정한 어머니의 품, 빛나는 삶의 품이라고. 본사기자



6. 15 공동선언기념조형물 제막식 진행

6.15공동선언기념조형물이 세 워졌다고 한다.

《하나되여》라는 주제의 침대우에 두손을 모은 형상 으로 제작되였는데 《남과 을 기념하고 그 력사적가치 북이 하나되여 이루어나가는 를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

남조선강원도 고성군에 꿈과 희망》을 의미하고있다

고 한다.

6.15공동선언기념조형물은 고성군이 최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남조선강 원도청과 함께 6.15공동선언 으로서 설치하였다고 한다. 제막식이 지난 18일 진행

제막식은 기념영상시청 남북공동선언문랑독, 조형 물제막순서로 진행되였다고

본사기자

주시였다.

4월남북련석회의가 열리는

류영준위원장을 비롯한 남

굳게 다지였다.

회의가 끝난 후 남조선에 나 간 류영준선생은 어버이수령님 의 가르치심대로 민족분렬의 고착화에로 이어지는 망국적 인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 쟁에 앞장섰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탄

주었다 선결성대회에 참가하려고 평 양을 또다시 찾아온 선생은 그때부터 공화국의 품속에

그는 공화국에서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되 였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 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성원 으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 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

류영준선생에게 돌려주시 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가렬처절했던 전화 의 나날과 그후에도 계속되

끝없는 그 사랑속에 그는 80고령의 나이에 이르도록 사업하였고 년로보장후에도 이전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나는 이제 죽어 백골이 진토 되여도 잊지 못하겠다. 거라.》

평

얼마전 일본에서 1895년 10월 조선황 궁에서 감행된 명성황후살해사건에 직 접 가담하였던 당시 일본외교관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였다고 한다.

해당 편지는 당시 명성황후살해사건 에 행동대원으로 가담하였던 조선주재 일본령사관 령사보 호리구찌가 만행을 저지른 다음날 쓴것이라고 한다.

편지에서 이자는 《우리가 조선황후 를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사건경위와 담당하였던 역할, 소감까지 상세히 적 었다고 한다.

그 편지는 력사에 《을미사변》으로 기록된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철두철미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 야만적인 범죄사건이였음을 다 시금 실증한 증거물이다.

19세기말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에 대 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할수 있는 유리 한 기회를 가지게 된 일제에게 있어서 중요한 방해물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아 닌 명성황후였다.

강압과 회유의 방법으로도 명성황후 를 틀어쥐지 못하게 되자 일제는 그를 아예 제거할 흉계를 꾸미였다.

그것이 조선주재 공사 미우라와 그 패당에 의한 명성황후살해음모였다.

당시 미우라가 《명성황후를 제거하 지 않으면 이 나라(조선)에서의 우리 의 세력은 몇달도 못가서 깨끗이 사라 질것》이라고 줴친것은 일본이 이 사건 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또 절실한 문제 로 여기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사르 도록 직접 지휘, 지시한 미우라가 히로

시마감옥에 일시 《감금》되였다가 무

죄석방되여 도꾜에 도착하였을 때 왜왕 이 측근을 보내여 명성황후살해의 이 른바 《공로》를 치하하고 위로까지 한 사실도 있었지만 이번에 폭로된 편지는 《을미사변》이 일본당국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국가테로행위였다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이처럼 일제가 력사적으로 저지른 죄 악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죄많은 과 거에 대하여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 지 않고있을뿐 아니라 그러한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 을 더욱 커지게 하고있다.

최근에 남조선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수십장의 반일선전화들이 인터네 트에 게재되여 사회적반향을 크게 불 러일으키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명할

불타는 일본렬도나 일장기를 짓밟 는 어린이들을 형상한 학생들의 그림 을 통하여 남조선민심의 반일감정이 동심에도 그대로 반영되여있음을 알

일제가 패망한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 지만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은 식을줄 모르고 더욱 고조되고있다.

다름아닌 일본이 그렇게 만들고있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날의 죄악을 청산하지 않 고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두려 한다면 력사의 심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 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만 더욱 굳세게

본사기자 주광일

《지방소멸은 곧 사회붕괴를 의미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지방 소멸》위기가 심각한 사회 정치적문제로 떠오르고있다

《지방소멸》이란 《수도 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 면서 청년층류출과 고령화심 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들 이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는것을 의 미한다고 한다.

고 한다.

현재 남조선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220여개 시, 군, 구가운데 108곳, 3 500여개의 읍, 면, 동가운데 1 791곳에 달한다고 한다.

력대 남조선당국의 반인민 적정책으로 지방들의 교육조 건과 의료 및 문화환경 등 생활형편이 《수도권》지역

렬악한것도 그 원인 들중의 하나이지만 중요하게 는 일자리때문이라는것이 전 문가들의 분석이다.

판매액이 높은 1 000여개 의 기업들중 700여개가 《수 도권》지역에 집중되여있는것 은 지방의 젊은층들로 하여 《지방탈출》에 나서게 하고있으며 이것은 《지방소 멸》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것이다.

그들속에는 새로운 삶을 위해 농촌으로 갔다가 지역 갈등과 수입부족으로 하여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청년 들도 많다고 한다.

어느 한 농촌마을에는 60여명이 살고있는데 그중

20대 1명, 30대 0명, 40대 2명, 50대 14명, 60대가 8명 이고 나머지 40여명은 70대 이상이라고 한다.

더우기 20~30대의 녀성들 이 한명도 없어 이곳에서 아 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린지는 20년이 넘었으며 마을은 점 차 자취를 감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2020년 지방에서 《수도 권》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8만 7 700여명이였으며 그중 92%가 20대였다는 자료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에서 《지 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을 잘 알수 있다.

《지방소멸》위기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고 한다.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태풍과 지 재난이 겹치면서 농민들 의 고통은 날을 따라 더해 지고있다.

여기에 효률성중심의 《신자 금》까지 받으며 쓸어들어오는 값싼 수입농산물들과의 경쟁 은 농민들의 생활과 생명을 더 욱 위협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농민회총련맹, 성농민회총련합 등 8개 단 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 이 주최한 《2021 전국농민 총궐기대회》에서 울린 원성 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보 아도 잘 알수 있다. 대회에 연설자들은 《저곡가적

업과 농민을 내팽개친 《무 장마, 악성전염병 등 여러가 시적폐》의 3대적폐가 농민 들을 짓누르고있다. 농민들 의 권리가 보장되고 농촌에 서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소멸에 대응할수 유주의농정》으로 각종 《보조 있다고 하면서 《사회대전 화》. 《농정대전화》을 위해 민중총궐기에 나설것을 다짐 했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에서 《수도권》 과 비《수도권》사이의 《지역 분렬》이 사회의 주요모순이 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는 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방의 소멸은 곧 남조선사 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남 조선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지목에 가서도 **저주**

지난 23일 남조선의 이전 독재자인 전두환이 죽었다고

그는 남조선에서 12.12숙 군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하 고 온 광주시를 피바다에 잠그었던 극악무도한 살인 마이다. 두손을 인민들의 피로 물들이고 권력을 강 탈하고 민주를 교살한 도저 히 용서 못할 치뗠리는 범 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저세 상에 가는 날까지 남조선인

인두겁을 쓴 살인마, 독재 광, 철면피한…

그러니 저승길에 올라서도 남녘민심의 저주와 비난을 받은 역도이다.

더욱 역겨운것은 그가 저세상으로 가면서 남겼다 고 하는 《유서》의 내용

역도는 이런 날이 올것에 대비하여 이미전에 쓴 자서 전에 《유서》라는것을 남겼 는데 그 내용인즉 《북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감 격을 맞이하는 일》이 자기 의 《념원》과 《소망》이니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 방고지에 백골로 남아있고싶

한마디로 저승에 가서도 《흡수통일》이 되는 그날을 보겠다는 넉두리이다.

다.》는것이다.

얼마나 동족대결에 미친 반통일분자인가.

그가 이전에 5.18광주인민 봉기를 《북의 지령》을 받 《폭도들의 란동》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으 며 공화국의 평화적인 수력 발전소건설도 《수공작전》

위한것이라는 모략설을 퍼뜨리며 남조선인민들의 혈 세를 짜내 《대응땜》을 건 설한다고 법석 소동을 피운 극악한 대결분자, 반통일분 자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동족대결로 일생을 보내다 가 그것도 부족한지 죽으면 서까지도 동족대결의 《유 서》를 남긴 전두환이다. 그 러니까 온 겨레의 저주를 받 을수밖에.

그러나 명백히 대 역도가 전방고지에 백골 로 남아 《흡수통일》의 그 날을 보겠다고 줴쳤지만 그 런 개꿈은 백년이 가도, 천 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당 《꼭두각시》



《국민의힘》의 《대선》후 보라는 윤석열에게 새 오명

《남자 박근혜》.

《도리도리》, 《쩍벌》, 《본부장》 부정부패 등 정계 에 나서자마자 희한한 오명 으로 이름뗠친것도 모자라는 모양이다.

일인즉 얼마전에 있은 TV토론회에서 연단에 오른 못하고 어색한 표정을 지은 채 두리번거리기만 했다는것 이다.

연설문이 나오게 된 《프 떠오른것이 바로 박근혜였다 롬프터》(자막로출기)가 동작 하지 않았기때문이라던지.

정치풋내기를 휘여잡고 남 되면 남조선이 불행해진다는

주》, 《어버버》라는 오명으 실황중계가 되는 속에서 로 유명했던 박근혜와 흡사 꿀먹은 벙어리처럼 놀아댄

박근혜가 무당아낙네 최순

는 사람이 옳은가? 자기의 《정책전망》을 발표하겠다 는 사람이 연설문을 꼭 보 아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 과 함께 시청자들의 머리에 고 한다.

심복들이 써준 연설문이 없으면 단마디말밖에 못하 던. 《수첩공주》. 《메모공

못하던 박근혜처럼 《프롬프 터》에 의거해서만 토론하려 는것도…

아마 그날의 연설문도 어

벌렸는데 윤석열은 또 실언, 망언이 튀여나올가봐 두려워 서 그랬는지 한동안 입을 벙 굿도 못했으니 이런 망신이

유치원생만도 못한 윤석열 을 남조선민심은 평가했다. 《남자 박근혜》.

본사기자 김정혁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강력히 비난

국제적인 조소거리가

되고있는 남조선정국

고 보도하였다고 한다.

특히 여야당의 후보들이

각종 부정부패의혹들로 민심

의 랭대를 받고있으며 그들

의 공약은 회의심만 불러일

남조선의 여야당이 《새로운

인물》) 들을 내세우면서 오그랑

수를 쓰고있지만 그에 대한 반

응도 싸늘하다고 하면서 상대

방에 대한 끝없는 비난전과 후

보들의 부정부패의혹으로 선거

판이 진흙탕속에 빠져들고있다

본사기자

고 조소하였다고 한다.

으키고있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 득권》과 정치권에 구걸하지 하면 《기득권청산시민련대》 가 얼마전 청와대앞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민생은 안중 권》욕심으로 정쟁만 일삼는 에도 없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여야정치권을 강력히 비 난하였다.

다음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

한 남조선정계의 개싸움에 대

해 세계의 여러 전문가, 언론

들이 이모저모로 평하고있다.

세계언론들은 《대선》무대

에서 벌어지고있는 남조선여

야당사이의 아귀다툼을 《오

하였다고 한다.

징어게임》에 비유하여 조소

《오징어게임》은 최근 세

계적으로 《인기》를 끌고있

다는 남조선 TV극인데 외신

들은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

차와 승자독식구조가 현재와

같은 선거판을 만들어놓았다

발언자들은 지금 여야모두 가 친일, 친미, 반통일, 반 고 새 정치를 열어야 한다면 민중적행태로 일관하고있으 서 《기득권》청산투쟁을 선 며 어떠한 사안에서도 국민 은 안중에 없고 집권야욕에 만 사로잡혀 누가 더 밥그 릇을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정쟁에만 몰두하고있다고 까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민은 인내 심있게 기다려왔지만 기성정 치권은 정신차릴 기미가 보이 지 않는다면서 더이상 《기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계 속하여 이번 《대선》은 《대 《기득권》세력 대 적폐청산 과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국 민의 싸움이며 국민이 나서 서 지금의 정치판을 갈아엎 포하고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민생외면 밥 그릇싸움 기득권정치 갈아 엎자!», **《**친미친일 굴종외 교 기득권정치 청산하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새 정치 창조하자!》 등의 구호를 웨쳤다.

본사기자



연출되는 매일처럼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국 민의힘》이 여러가지 문제로 조선정치판을 마음대로 주물 하여 불안에 쌓여있는데 대 해 보도하고있다고 한다.

우선 선거대책위원회구성 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윤석열과 전 비 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사이의 암투문제이다.

둘 다 선거대책위원회구성 을 놓고 자기식대로 하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따지고보 면 권력을 서로 나누지 않 으러는 허욕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정권》 탈환을 위한 있다.

윤석열은 김종인에게 권한 이 집중되면 그의 꼭두각시 로 전락될수밖에 없다는 위 구로 하여, 또 지지표를 여기 저기서 다 긁어모으려는 욕 망으로 그의 반대에도 무릅 쓰고 선거대책위원회의 요직 에 어중이떠중이들을 올려앉 히였다고 한다.

거기에는 김종인이 결코 만능해결사는 아니다, 김 종인의 독판치기가 후보에 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는 안된다는 《국민의힘》내 부의 불만도 작용했다는 설 도 있다.

러보려던 김종인은 일이 이렇 게 되자 윤석열이 선거대책위 원회에 들어가는것을 거부하 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는것이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선거대책위원회구성을 둘러 싼 윤석열과 김종인사이의 불화가 심화된데 대해 보 도하면서 서로가 결별할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 원회가 조직도 되기 전부 터 삐걱거리고있다고 평하 였다.

한편 《대선》 후보선출경쟁 에서 윤석열에게 밀려난 홍 있다. 준표가 당을 무시하고 독자 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고있는 것도 《국민의힘》의 골치거 리라고 한다.

홍준표는 당내 경선결과에 《승복》 한다고 하고서도 이 후 련일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벌려놓고 윤석열과 그 의 가족들이 모두 범죄혐의 이 연출한 정치막간극의 토 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있 는것만큼 그가 《대통령》이

등 《1일 1공격》을 들이대 며 로골적으로 《반윤석열행 보》를 걷고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가 자

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20, 30대 청년층을 계속 끌어당기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자세력구축》 으로 다음 권력을 넘겨다보는것이 아닌 가 하는 보수세력내부의 의 심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 도 그럴것이 얼마전에 홍준 표가 2027년 《대선》에 도 전하는데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나이는 수 자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것을 놓고도 잘 알수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 힘》이 홍준표때문에 몸살을 앓으면서 곤경에 빠져들고있 다고 평하였다.

권력을 놓고서는 그 누구 이건, 설사 부모형제일지라도 한치의 양보가 없는 권력광 들의 집합체인 《국민의힘》 막들이다.

아연하게 하였다. 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 실의 주술에 놀아난것처럼 손

> 바닥에 《王》자를 새겼던것 도, 《하늘의 기운》, 《간절 히 원하면 우주가 돕는다.》 리만 하던 박근혜처럼 《주 120시간로동》, 《손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와 같이 황

설문이 없으면 단마디밖에

와 같이 동에 닿지 않는 소 당한 소리를 늘어놓는것도, 최순실과 심복들이 써준 연

느 누가 써준것이 분명할것 이다.

그래도 박근혜는 입이라도

또 어디 있는가.

그날의 2분은 윤석열이라 는 사이비정객의 수준이 어 느 정도인가를 세계앞에서 망 신스럽게 드러낸 2분이였다.

さ10/5/

《이기면 영웅, 지면 역 적》, 이 말은 동서고금의 력사에 기록된 하많은 권력 쟁탈전들을 함축한 격언일것

지금 여야당모두가 《정치 보복》의 칼을 벼르는 남조선 정국도 《영웅》으로 살아남 느냐, 《역적》이 되여 죽느 냐의 험악한 싸움판으로 변 하고있다.

우선 여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로 집권하면 상대방을 감옥에 처넣겠다 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는것 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리

재명은 《국민의힘》의 후 보 윤석열과 그 일가의 부 정부패의혹을 《본부장》(본 인. 부인, 장모)부정부패로 규정하고 후안무치한 윤석 열과 도적뗴무리인 《국민의 힘》을 일망타진하겠다고 공 언하였다.

윤석열은 또 그대로 리재명 이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의 주 본사기자 김 광 혁 !! 범이라고 하면서 그와 《신적

페》인 현 《정권》을 청산하 겠다고 고아댄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

한 보수세력은 《공정》 과 《정의》를 운운하면 서 현 《정권》의 부패를 반 드시 청산하겠다고 로골적으 로 적의를 드러내고있으며 보 수언론들도 지금은 《자유민 주주의》를 다시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것들을 쳐낼 《청소부》, 《싸움군》이 필 요하다는 여론을 내돌리며 보수세력을 적극 부추기고있 다고 한다.

《정치보복》은 최악의 《정치후진지역》인 남조선에 서 정례적인것으로 되여있는 고질적인 악습이다.

하지만 윤석열과 《국민 냐? 의힘》은 권력을 잡기 전부 터 《정치보복》을 고아대고 있으니 그들이 속에 무서 운 앙심을 품고 어떤 《정 치학살》을 계획하고있는가 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나조선의 전문가들은 현

것이다.

《정권》에 복무하였고 리명 박과 박근혜를 구속하는데 앞장섰던 윤석열이 《국민의 힘》의 후보로 선출된것은 보 수세력이 누구에게 몽둥이를 쥐여주어야 하는가를 계산 해본 결과이다, 홍준표보다 는 검사출신 윤석열이 《적 임자》라고 판단하였기때문이 라고 평하고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여야 당사이에 사생결단의 험악한 싸움판으로 전락되고있다, 이기면 《대통령》이 되지만 지면 감옥에 가는 처절한 선 거로 되여가고있다. 선거전이 아니라 복수전으로 번지고있 다고 평하였다.

《영웅》이냐, 《역적》이

민생을 살리라는 남조선 인민들의 요구는 내팽개치 고 《무조건 권력》과 《정 치보복》에 혈안이 되여 날 뛰는 사이비정객들에게 민 심은 과연 어떤 심판을 내 릴것인가.

김창운

오늘날 자본주의나라들에

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살

인사건들과 총격사건들, 친

혈육간에도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사건이 번번이 일어나

는것과 같은 말세기적인 풍

조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께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

락을 함께 해나가는 미덕

이 공기처럼 차흐르는 공

화국과 저 하나만의 리

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

는것도 서슴지 않는 판이

한 현실은 얼마나 대조적

하기에 공화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

포들도 저저마다 《조선은

인간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인가.

《우리》라는 부름과 함

얼마전 취재길을 이어가 던 기자는 이웃들이 한자 리에 모여 즐겁게 웃고 떠 들며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집집마다 김치맛이 다 다른데 자기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웃들끼리 제 집의 김치를 주고받으며 맛 보는 재미 또한 좋답니다.》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 을수록 민족적정서가 한껏 넘쳐나 절로 마음이 흥그러 워지게 하는 모습에서 눈 길을 뗴지 못하느라니 언 제인가 같은 인민반에 사 는 한가정을 위해 저마다 펼쳐나 일판을 벌려놓은 이

누구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우에 올라가 기와장 을 내리우고 누구는 몰탈 을 이기고 또 누구는 금 이 갈세라 유리를 정히 받 쳐들고 창문에 끼워넣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앞 에서 기자는 걸음을 멈추

웃들을 본 일이 떠올랐다.

지 않을수 없었다. 남의 집일에 제 집일처럼 펼쳐나 한점 바람이 스며 들세라, 눈비에 젖어들세라 왼심을 쓰며 정성다해 도와 주는 그들이야말로 인정많 은 이웃들이였다. 그들속에 는 바쁜 속에서도 우정 시

간을 내여 온 사람도 있었 고 불편한 몸이지만 남먼 저 달려온 녀성도 있었다. 아름다운 소행에 감동을 금치 못하는 기자에게 그

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게 무슨 큰일이겠습 니까. 같이 사는 이웃들 르기마련이다.

끼리 돕는거야 응당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웃들끼리 서로 돕는것 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이들속에서 발휘되는 소행

은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군대에 나가는 아들을 바래주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저마다 어머니, 누이가 되 여 역전까지 달러나간 이 야기, 아파하는 사람이 있 으면 스스로 찾아가 병구 완도 하고 많은 약재들도 마런해주며 정성을 쏟아부 은 사실들, 그것은 어렵 고 힘든 때일수록 자기보 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기 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사랑과 정은 삶의 향기 이고 행복의 기초이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곳 에서는 서로 위하고 아껴 주는 인간다운 생활이 흐

《나》보다 《우리》가 우선시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는것 을 고상한 미덕으로 내세

우고있는 공화국에서는 흘 러가는 모든 생활이 그대

로 따뜻한 정과 사랑, 아

름다움으로 충만되여있다.

하지만 《우리》라는 말보 다 《나》라는 말이 우선시 되는 사회, 극단한 개인주의 와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 면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당 연한것으로 되고있는 자본 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미덕

나라》, 《인간의 본태가 살아숨쉬는 사회》라고 격 찬하고있는것이다.



울며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줬다면…

남조선잡지 《월간중앙》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함 께 렬악한 조건에서 거주하 는 청년들의 고독사도 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 하였다.

지난 8월 4일 인천 영종 도의 작은 아빠트방벽에 걸 린 달력은 6월에 머물러있었 다. 방 한쪽에는 부탄가스통 10여개와 빈 소주병 10여개 가 아무렇게나 나딩굴었다. 30대남성 A씨는 극단적선택 을 하고 두달이 지나 발견 되였다. 그가 남긴 물품더미 엔 《서른엔 행복해지기로 했 다》라는 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기자가 눈으로 본 현장은 참혹했다. 100건이 넘는 청년 고독사현장을 다녀본 특수청 소부 K씨는 **《**마지막순간까 지 고립감에 몸부림쳤을 고 인을 떠올리며 마음으로나마 마지막관심과 위로를 건네군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서울 구로구의 7평짜리 작은 방에

서 30대녀성 B씨가 숨진채 발견되였다. 직장을 잃고 런 인과 헤여진 B씨는 한달가까 이 식음을 전폐한채 이웃집 에 들릴만큼 목놓아울었다. 울며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줬다면…

고독사의 원인은 실로 다 양하다. 경찰이 《변사사 건》을 처리하면서 밝히는 배 경은 대개 사업실패나 건강 악화, 경제적어려움이 원인이 다. 이 모든 원인은 《신변 비관》으로 간단히 정리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비관으로 책임을 돌릴수 없 는것은 그 리면에 우리 사 회의 소외와 단절, 무관심이 깔려있기때문이다.

고독사위험에 처한 청년들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 와주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는 없다. 중앙자살예방쎈 터장을 지낸 한 교수는 《이 들에게 위기가 발생하기 전 에 구조할수 있는 체계가 마 련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031

OH

본사기자

학계의 이목을 모으는 청년과학자들

세계와 당당히 겨루고 세계를 압도할 배짱으로 첨단과학기술을 돌파하기 위해 두뇌전, 실력전을 벌리고있는 과학자들속에는 김책 공업종합대학의 청년과학자들도

대학의 최용선연구사는 학술적 의의가 큰 미광방전플라즈마특성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구현한것으로 하 여 학계의 이목을 모으고있는 청 년과학자이다.

첨단과학분야인 대학시절부터 플라즈마공학에 흥미를 가지고 이와 관련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온 그는 물리공학부 플라즈마연 구실에서 연구사업을 하면서 수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 여 발명증서와 교육과학성과등록 증을 비롯한 10여개의 증서를 수 여받았다.

최근에는 플라즈마용사기술을 정밀기계가공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교육과 생산현장과의 밀접한 런판속에서 진척시켜 과 학기술발전과 실천형인재육성에 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대학의 최효성연구사도 유색금 속합금화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근 기있게 내밀어 국내의 자원에 의 거하는 새 재료를 개발하였으며 실리있고 우월한 새 교수방법을 창조하였다.



그는 대학 재료과학기술학부 금속재료연구실에 망라되여 합금 원소들을 적게 쓰면서 기계적성 질이 좋은 합금강을 개발할수 있 는 미량원소합금화 등 수많은 연 구사업들을 진행하여 과학기술성 과도입증을 비롯한 10여개의 증 서를 수여받았다.

다국어소유자이기도 한 그는 대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실리있고 우월한 새 교 수방법들을 창조하고 전국에 도입 일반화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현재는 연신, 압연, 단조, 절 단 등 금속가공공정에서 에네르 기를 절약하고 런속생산을 실현 하기 위한 첨단연구과제를 맡아 안고 고심어린 탐구전을 벌리고 있다.

본사기자 림 광훈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때가정

태여난 또 한명의 《처녀어머니》 화원에

몇해전 공화국의 신문과 방송, TV로는 하반신마비가 왔던 동해학원의 한 원아가 침상에서 일어나 대지를 활보 한 소식이 전해졌다.

10대의 소녀이름은 안정 심, 수술후 정심이의 상태는 의사들과 간호원들의 관심속 에 있었다.

당시 동해학원에서 원아들 의 건강상태를 돌보던 최선 희는 정심이의 간호를 전적 으로 맡아안았다.

정심이가 때없이 열이 날 때면 그의 침상에서 꼬박 밤 을 새우군 했고 입맛을 잃 을 때면 남모르게 눈물을 흘 리던 그였다. 최선희는 밖이 되면 어린 정심이를 품에 꼭 이 없었다. 껴안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군 했다.

어느날 밤 정심이를 돌보 다가 불시에 몰려드는 졸음 얼굴에 와닿는 부드러운 촉 감을 느끼게 되였다. 얼굴에 실린 어린 손, 고운 눈에 가 정심이와 함께 나란히 잠자 용품, 수많은 약들과 식료품 랑가랑 맺혀있는 눈물…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 도 되나요?》

선희는 그제서야 어린 슴에 소중히 간직된것이 엇인가를 깨닫고 말없이 정 심이를 꼭 껴안았다. …이렇 게 되여 그후 정심이는 고 향으로 돌아가는 《처녀어머 니》 최선희와 함께 평양행 에 올랐다.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 머니구실을 하기는 힘들다는 말이 있다.

모든것을 각오하고 뗸 걸 음이였지만 그 한걸음한걸음 은 순탄하지 않았다. 평양의 학대학병원에서 전문병원으

로, 또 옥류아동병원으로… 정심이의 건강회복을 위해 바쳐진 최선희의 정성에는 끝

깊은 밤 져 병원으로 뛰여간적이 한두 사람들이 찾아왔다. 번이 아니였고 입원생활기간 에는 늦은 퇴근길에도 어김없 에 깜빡 잠이 들었던 선희는 이 들려 병상태를 알아보고서

야 마음을 놓군 하였다. 리에 누웠을 때였다. 한동안 등을 들고 찾아오군 하였다. 불현듯 정심이의 입가에서 무엇인가 생각하던 정심이가 선희에게 이렇게 속삭이였다.

학에 갈수 있을가요?》

건강을 추켜세우기도 어려 운데 정심이의 마음에는 대 학교정이 벌써 자리잡고있었 던것이다.

> 그후 최선희의 일과에는 치 료시간과 함께 학습시간이 새 로 생겨났다. 선희는 정심이 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그러보며 스스로 학교선생님 들의 《제자》가 되였고 밖이 깊도록 딸애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풀이도 배워주고 물리와 화학학습도 함께 하였다.

> > 학교의 선생님들도 정심이 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 퇴 근후이면 의례히 정심이의 집을 찾았다.

> > 정심이를 위해 어머니의 진 정을 다 바쳐가는 최선희의 집으로는 날이 갈수록 많은

이웃들은 별식이 생기면 먼저 정심이의 집을 찾았고 나이도. 사는 곳도. 하는 일 도 각이한 사람들이 《우리 어느날 밤이 깊어 선희가 정심이》라고 부르며 옷과 학 1월 10일은 정싞이의 생일날

이다. 그 생일도 정심이는 병 《어머니, 나도 앞으로 대 원의 침상에서 쇠게 되였다. 생일음식들을 안고 병원에

다달은 선희는 뜻밖의 광경 에 놀랐다. 정심이가 있는 입 원실의 넓다란 상에 주런이 펼쳐진 갖가지 음식들, 그

호원들… 결국 자기보다 먼저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정심이의 생일

두리에 모여서있는 의사, 간

그날 정심이는 사진도 많 이 찍었다. 어머니와도 찍고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과도 찍었다

상을 차려준것이였다.

이날의 생일축하연은 정심 이가 부른 《세상에 부럼없 어라》의 노래로 절정을 이

설음중의 제일 큰 설음은 부모없는 설음이 라고 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라면 생 도 꿈도 무참히 짓밟히웠을 소녀, 허나 누가 보아도 고 아라고 하기에는 믿을수 없 는 정심이의 두볼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 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 우 리 집, 그 집을 지키고 빛내 이는것을 이 나라 공민의 순 결한 량심으로 새겨안고 최 선희는 정심이를 뜨거운 진





《세금없는 L단에 대한 010[기》(2)

(제33조)라고 규정하시였고

그후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

원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철폐

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

으며 그해 3월에 있은 최고인

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그것을 법령 《세금제도를 완

전히 없앨데 대하여》로 제정

록 하시였다.

서특필하였다.

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하도

세계의 광범한 신문들은

《조선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조선

은 4월1일부터 세금을 받지

않는다》, 《조선인민 세금에

서 완전히 해방》, 《세상에

서 세금을 철폐한 첫 나라》

라는 제목으로 그 의의를 대

세금이 없이 국가를 어떻

사실에 주목하면 될것이다.

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학

급학생들과 조세문제와 관련

한 토론을 벌리신적이 있었

다. 당시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가까운 앞

날에 북에서 세금제도를 종

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강령

적인 과업이 제시되였다. 토

론의 초점은 농업협동조합에

서 바치는 현물세가 낡은 사

회의 유물인 조세의 일종인

를 국가의 존재와 결부시키

가 하는것이였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어

하는 한 세금이 필요하다는것이 지금 세상에 사 는 사람들의 머 리속에 굳어진 인식이다. 하지만 북에

는 누구나 두 려움을 안고 바 라보는 국세청 이나 세무국이 라는 《괴물》 이 존재하지 않 으며 따라서 세 무원이라는 직

업도 없고 해마 다 바치는 세금 보고서도 없다. 북에서는 준 엄한 전쟁시기 에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 득세를 대폭 낮

후 어려운 시기 30%나 낮추고 농민들의 현 물세률도 대폭 낮추도록 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

1973년에 이르러 북의 국 은 1.9%에 불과하였다.

대여날 순간이 다가왔다.

○ 추는 조치를 취 하였고 한푼의

돈이 그립던 전

에도 소득세를 였다.

가 완성되고 공업화의 기초 가 튼튼히 닦아지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금제도 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를 제 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먼 저 농민들이 바치던 농업현 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사 이에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가예산수입에서 98.1%는 사 회주의경리로부터 얻은것이였 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이 문 고 주민들로부터의 세금수입 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으로 하여 북민중만이 받아 바야흐로 력사의 기적이 선행리론에서는 조세문제

인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영 면서 조세의 성격을 국가의 원히 해방시키기 위해 위대한 계급적성격에 기초하여 규정 김일성주석께서는 1972년에 하였고 조세의 본질도 국가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 가 국민소득을 재분배하여 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수단이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리론으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내놓 으신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과업을 타당하 게 설명할수가 없었다.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의 견해는 지금 서방세계가 생 각하듯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조세문제는 풀리지 않 는다는데 머물러있었던것

이다 이날 조세제도의 부당성 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깨 우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조세에 대한 리해를 국가 와 함께 생산수단에 대한 사 적소유제와도 결부시켜보아

히시였다. 그리고 조세는 사적소유 에 의거한 착취사회의 고 게 운영하는가에 대해 정확 유한 경제적현상이며 국가 히 리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가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 적소유. 사회적소유에 기초 하고있다면 사회운영에 필요 한 돈을 조세공간을 리용하 지 않고도 국가소유의 기업 소들에서 얼마든지 얻어낼수

있을것이라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북의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에서 정권의 주 인이 되여 사회와 경제발전 에 참답게 기여하고있으니 세금이 필요없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세금폐지는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을 모심 안은 행운증의 행운으로 되

손 닳도록 쓰다듬어주며 키운 정 사무칩니다

요즘 공화국인민들속에서 찾았다. 널리 불리워지는 노래 《어 머니를 사랑합니다》의 구절 들이다. 이 노래를 조용히 불러보 였다.

느라면 자식들앞에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시각 가는 공화국의 수많은 어머 니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부교수 어순옥선생도 있다. 보내는 어순옥선생의 가정을

그의 집에 들어서니 자식 이 흘러내렸다. 들과 손자, 손녀들이 한자 리에 모인 축하연이 한창이 연구성과들을 이룩한것으로 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은 훈장들과 메달, 중서들이 고마움과 감사의 꽃다발 도 깨끗한 량심과 아낌없는 을 드리는 자식들의 얼굴에 헌신, 사심없는 사랑을 바쳐 는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비 껴있었다. 비바람이 불수록 날이 찰수록 껴안아주며 심

축복속에 어머니날을 즐겁게 친 어머니였다.

그들속에는 평양의학대학 림 장을 불태워 자기들을 안아 던적도 있었고 육체적과로로



어머니께 삼가 드릴 꽃송이 상제2의학부 안과학강좌 박사 키워준 어머니였다. 자기들뿐 아니라 후대교육사업과 과학 얼마전 기자는 온 가족의 연구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

하여 어순옥선생이 받은 많

걸려있었다. 어순옥녀성이 의학자의 첫 걸음을 내짚은 때로부터 어 언 40여년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그 나날들에는 누구 도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연 구사업을 자진하여 말아안았

인해 쓰러진적도 있었다. 반복되는 실험과 겹쳐드는 실패는 그의 심신을 무섭게

압박하였었다. 《정말 힘겨운 로정이였습 니다. 너무나도 품이 많이 들고 끝도 보이지 않는 연구 사업이여서 주저앉고싶을 때 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자식들에게 떳떳한 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우리 어머니가 되는 길이고 의학자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의 량심을 지키는 애국의 길

이기에 자신을 다잡고 일어 서군 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수많은 론문 자식들의 축복을 받는 어 《전신질병과 눈》, 《근시와 게 울리였다. 순옥선생의 눈가에서 맑은것 예방》, 《안과약물》과 같은 도서들과 참고서들은 후대교 방벽면에는 수십건의 과학 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적

어머니가 걸어온 그 길을 함께 추억하며 자식들이 부르 는 노래의 선률이 울리였다.

> 모진 고생을 달게 여기며 행복만 주고도

어머니사랑은 갈수록 뜨겁고

왜 그리 끝이 없던지 온 세상 다 듣게 웨치고 싶어라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온 나라 인민이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 당의 품을 떠나 오늘의 이 행복을 어찌 생각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 니들을 자식들앞에 떳떳하게 내세워주고 언제나 바른 길 로 가도록 따뜻이 보살퍼주

위대한 어머니당을 우러러

터치는 심장의 이 고백은 어 옥순녀성의 가정에서만 울린 부름이 아니였다.

천만자식을 위하여, 조국 을 위하여 열과 정을 깡그 리 바쳐가는 어머니당에 삼 가 드리는 고마움의 인사는 들과 《최신구급의료봉사》, 온 나라 가정들에서도 뜨겁

재미동포 리일경선생이 제기한 질문

투 때 문 타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어떻게 배정받는가

공화국에서는 자본주의나 이 살게 될것이다.》라고 제 라들에서 웬만큼 재산을 가 나름의 억측을 내돌리였다. 지고있는 사람들도 사기 힘 들어하는 고급살림집을 평 들이지 않고 국가로부터 배

정받아 쓰고살고있다. 거리를 비롯하여 그 어디에 을 받았다. 가도 돈을 내고 국가로부터

만수대거리를 놓고보아도 할 일이다. 고급아빠트들이 일떠설 당

단 한명도 없다.

달리 만수대거리의 고급살 야 할 권리를 마음껏 누리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림집들에는 로동자, 과학 자, 교원들을 비롯한 평범 한 사람들이 입사하였고 철 평양의 현대적인 창전거 거세대들이 한세대도 빠짐없 떠선 창전거리의 어느 한 가 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 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 이 새 살림집의 리용허가증 정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돈 고있는 현실에 부러움을 금

집값과 집세가 하늘높은 받은 살림집에 행복의 보금 새 살림집을 받은 사람이 줄 모르고 오르고있는 자 자리를 편 로동자가족의 모 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못 습이 정말 부러웠다. 자본

하기에 조선을 방문한 사 인 현실이였다. 자본주의나 인민사랑의 정치가 빛나게 시 외국의 언론들은 《경치 람들은 누구나 다 서방의 라들에서는 로동자들이 일 구현되고있다는것을 잘 알 좋은 이곳에서 아마 국가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생 벌어도 집 한채 마련하기 수 있다.》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간부들 를 목격하면서 이 나라에서 가 힘들다. 그러나 조선에서

는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수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없으며 누구나 인간이 누려 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 하였다.

> 한푼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할수 없었다. 국가가 희한한 주의사회와는 너무도 대조적

는 실업자나 집없이 방황하 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온갖 국가적혜택속에 살고있으며 인민을 위한 사회적시책들은

《현대적인 거리들에 줄지 어 늘어선 초고층살림집들 《나는 평양에 훌륭히 일 에서 교원, 과학자들을 비 새 살림집들을 돈 한푼 받 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상으 로 안겨주는 이 하나의 사 실만 놓고보아도 조선에서

짝수 즉 4간

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

군과 동명왕을 함께 제사하

게 되는 건물의 사명으로부

터 출발하여 단군제단은 서

쪽 2간에, 동명왕제단은 동

쪽 2간에 동등하게 갈라놓

은데서 생긴것같습니다. 건

물의 규모에 비하여 간략화

된 두공을 쓴것도 특징적입

니다. 일반적으로 후기로 내

려오면서 두공이 포수가 많

아지고 복잡해지는데 이 건

물에서는 3포짜리 포식두공

으며 숭령전에서 지성을 다

해 조상을 제사지내던 선조

들의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

오늘도 숭령전은 우리 민족

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잘 알

게 해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리일심연구사의 해설을 들

을 썼습니다.》

보았다.

보

역사유적을 沙沙人

쪽행랑 3간, 서쪽행랑 2간,

대문 3간과 동서좌우에 달린

좁은 문각 1간씩으로 이루어

져있었다. 그러나 일제식민지

통치시기에 대부분 파괴되고

본정과 대문만 남게 되였다.

(12.88m), 측면 3간(9.17m)

으로 되였다. 비탈진 언덕 중

턱에 터를 닦고 그우에 세워

진 숭령전의 밀단의 높이는

1.15m이다. 밑단우에는 바깥

에 14개, 안에 6개의 흘림기

《이 건물에서 특징적인

숭령전의 본정은 정면 4간

심연구사와 함께 숭령전을 찾아 취재길을 이어갔다. 맑 은 공기를 마시며 평양의 거 리를 걷는 기분이 더없이 좋

이윽하여 기자는 평양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장대 재언덕에 도착하였다.

리잡고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 옆에 서있었다.

겹처마의 합각지붕을 떠인 숭령전은 보면 볼수록 고전 미가 살아나는 가치있는 력 사유적이다.

《숭령전은 조선봉건왕조중 게 되였다.

리일심연구사의 말에 의하 면 숭령전은 1429년에 처음 세워졌다고 한다. 원래 이 건물은 우리 민족 의 원시조인 단군을 제사지내

던 사당집이였다. 후에 단군 의 사당에서 동명왕을 함께 제사지내게 되였는데 그것은 숭령전은 장대재언덕에 자 15세기초엽부터였다. 《세종 실록》에 의하면 1429년에 단 군사당을 세우고 동명왕을 함 께 제사지내게 하였다고 한다.

그전에는 《단군사》, 《단 군전》이라고 불리웠던 이곳 등을 세우고 3포식두공을 얹 을 그후 숭령전이라고 부르 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재능있는 리천에게는 발방아소리가 은

밀을 녹여 붓고 활자를 박 레방아를 살펴보고는 틀이

는

군 하였다.

은히 들려왔다.

청자물고기모양주전자는 물 고기를 형상하여 만든 고려 시기의 푸른자기주전자이다.

이 주전자는 높이가 24.3cm, 직경이 13.5cm이며 물고기모양 더욱 실감있게 만들었다.

과학자, 발명가, 출판인쇄기

술자인 리천(1376~1451년)이

세종왕의 령을 받고 새 활

자인 《경자자》를 발명하였

당시 조판은 활자판에 황

아넣는 방법으로 하였다. 이

런 방법은 황밀이 인차 터지

고 활자들이 움직여 인쇄물

어느날 잠자리에 누워 새

활자를 가지고 더 많은 책을

찍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을 많이 찍지 못하였다.

을 때였다.

청자불고기모양주전자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의 몸체에 물주두의 역할을 하 는 룡대가리가 붙어있고 련줄 기를 꼬아붙인듯 한 손잡이가 달려있다.

날개모양으로 된 두개의 큰 지느러미가 몸체우에 붙어있 고 꼬리지느러미는 뚜껑의 역 할을 하도록 되여있다.

주전자의 밑에는 런꽃잎을 돋을새김하였고 지느러미와 비늘을 섬세하게 선새김하여

그 소리를 들으니 어렸을

때 외가에서 보았던 물레방

아생각이 났다. 외할아버지

는 자주 물레방아간에 나가

움직이거나 삐걱소리가 나

다. 리천은 손질할 곳을 자

세히 보고는 맞춤한 쐐기를

골라 외할아버지에게 섬겨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순

곳에 쐐기를 박군 하였

군 하였다. 외할아버지는 물

쐐기에 대한 생각을 하던중에

이 주전자는 형상수법이 독특하고 형태 또한 특이하 며 어두운 담록색계렬의 회 청색유약이 고르롭게 입혀져 있어 자기의 품위를 한결 돋 보이게 한다.

이 자기는 당시 자기공예 술의 높은 발전면모를 보여 주는 유물로서 고려청자기 중에서도 걸작으로 평가되

간 리천은 《쐐기, 쐐기다!》

하며 불쑥 일어났다. 조판할

때 황밀을 쓰지 않고 활자를

세운 다음 그 사이에 쐐기질

을 하여 활자들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면 더 많은 책을

리천은 곧 여러가지 형태의

나무쪼각을 만들어가지고 시

험해보았다. 이렇게 하니 한

번 조판하여 수백장도 잠간사

이에 찍어낼수 있었다. 후날

조판기술의 원형으로 된 조판

본사기자

방법은 이렇게 발견되였다.

찍을수 있을것같았다.

본사기자

도



압록강체육단의 김송이는 국제탁구련맹 2012년 유럽-아 프리카순회경기인 스웨리예공 개탁구경기대회 녀자단식경기 와 2016년 국제탁구련맹 세계 순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 기대회 성인급 녀자단식, 녀 자복식경기에서 금메달을 획 득한 선수이다.

2016년에 그는 국제탁구련 맹 녀자탁구명수상 수상후보 본사기자 리철민 자로 선정되였다.

김송이선수는 2016년에 있 은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탁 구 녀자단식경기에서 전문가 들의 예상을 뒤집고 파문을

상대편선수의 완강한 공격 에 대처한 끈질긴 방어, 그 러다가도 불이 번쩍 나게 빈

공화국에서 체육도서들과 어

린이지능교육도서들이 새로 출

판발행되여 많은 사람들속에서

도서 《누구나 배울수 있

는 롱구》는 롱구기초기술,

롱구에서 1대1공격기술, 롱

구에서 결합공격기술 등의

장체계로 구성되였으며 재치

성과 민첩성, 속도와 인내력

을 키워주는 롱구의 29가지

기초기술동작으로부터 시작

하여 공격과 방어 등의 경

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도서 《스키타기》에는 거

리스키타기, 고산스키타기,

판스키타기, 조약스키타기를

비롯한 각이한 스키타기방법

과 기재 및 복장들, 스키장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넋

상세히 소개되여있다.

인기를 모으며 애독되고있다.

공간으로 들이대는 역습속 공… 이것은 탁구 녀자개인 전에 출전한 그의 경기장면 이였다.

당시 언론들은 김송이선수 의 재치있는 깎아치기와 높 은 반공격능력에 대해 평가하 면서 일본선수들이 련속 무

그의 경기과정이 얼마나 인상적이였던지 국제탁구련맹 은 이렇게 전하였다.

릎을 꿇었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의 김송이는 이번 올림픽 탁구 녀자단식에 나 타난 제일가는 〈검은말〉이 였다. 일본의 후꾸하라 아이 는 3회전까지 그에게 그 어

> 패하였다.》 한다하는 강자들이 모여 승부를 다투는 올림픽경기대 회에서 높은 기술을 보여준 것으로 하여 일약 세계적인 명수로 등장한 그였다.

> 떤 위협도 주지 못하고 모두

그가 경기에서 보여준 기술 동작들은 저절로 이루어진것 이 아니였다.

그에게는 휴식날, 휴식시간 이 따로 없었다. 품들여 익힌 특기기술은 드디여 성과로 이 어졌으며 여러 국제경기들과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그 위력을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을 익힐수 있게 만든 《수자

간》(3~5살)과 《령리한 꼬

마너구리와 함께 배우자요》

(4~6살)의 속편들인 **《**그림

그리기》. 《글자와 단어놀

이》, 《시간놀이》, 《색갈맞

추기》 등의 지능교육그림책

들은 자식들을 지혜롭고 총

명하게 키울수 있게 해주는것

으로 하여 저마다 찾는 도서

본사기자

들로 되고있다.

민기있는 체물도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

공화국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프로그람작성도 전경연 《개척자-2021》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 에 진행되고있다. 심

이번 경연에는 전국의 대학, 제1중학교와 고급중 학교, 초급중학교 학생들과 교육, 과학연구기관의 \mathbf{O}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 정보기술부문에서 일 하고있는 근로자들, 프로그람애호가들을 비롯하여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가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지난 시기 국제적인 프 77 로그람작성경연에서 높은 실력을 펼친 우수한 연 구사들을 망라시켰는데 이들은 새로운 직결심사체

경연에서는 단순한 문제들로부터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제시되고있으며 응시자들은 제시된 문제 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람작성언어를 리용하

280여개 단위의 1 24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된 3차례의 예선경연들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 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 원, 연구사, 학생들과 김형직사범대학부속 대동강 구역 릉라고급중학교 교원, 평양제1중학교 학생을 비롯한 많은 성원들이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준결승경연이 진행된데 이 어 결승경연은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 되게 된다고 한다.

계기로, 하루빨리 세계를 앞서나갈 프로그람개발 능력을 지닌 쟁쟁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다.



계를 개발하였다.

여 제출하는데 언어는 자체로 선택하고있다.

시간이 갈수록 참가열의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번 경연은 나라의 정보기술발전을 추동하는

이 깃든 귀중한 민족문화유 산의 보물고에는 민요 《바 다의 노래》도 있다. 이 노래는 세찬 파도를 헤

가는 어로공들의 근 면한 로동생활과 그 속에서 꽃펴나는 그 들의 락천적인 모습 을 반영한 로동민요

이다. 0 도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동 해안일대의 사람들속에서 널 리 불리워오던 민요 《배놀

이》에서 유래되였다. 민요 《배놀이》의 가사가 1957년 에 어부들의 생활모습이 반

악작품이다. 가사에서 특징적인것은 바

> 들의 투쟁을 매우 생활적이 면서도 진실하게 노래한것 이다. 또한 대구와 반복과

있다. 노래의 선률은 반굿거리장 단의 밝고 흥겨운 정서로 하

여 강한 률동성을 띤 다. 조흥구로 된 가 사와 결합되여 전개되 는 선률은 마치 푸른

안겨준다.

상과 함께 독특하면서도 랑 만적인 로동생활모습을 감명 깊게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공화국에서 널리 불 리우고있다.

본사기자

사 화

쌈 (2)

《오냐, 맛이 잘 들었구 나. 작년것보다 낫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 는 입안에 든 김치를 몇번 씹어보더니 《배추도 만문하 고 류다른 향기에 가슴속이 다 시원해지는구나!》 하고 칭찬하였다.

《이만하면 너의 김치담그 는 솜씨가 어디 내놓아도 부 끄럽지 않을것같구나.》

《원, 어머니두… 무슨 내 솜씨겠나요. 우거지배추로 꼭 싸놓았으니 맛이 고루 들 고 양념대신에 넣은 여러가 지 산열매가 맛을 돋군것이 겠지요.》

《옳다. 나도 평생에 이런 김치맛은 처음 보는데 그 산 열매가 조화를 부리는게 틀 림없구나.》

설날이 오자 고분이는 아 침 일찌기 이웃집 부엌들을 조용히 찾아가 보쌈김치 한보 씩 맛보라고 내놓으면서 다정 히 설인사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온 동네가 설날 아침 희한한 설음식으로 보 쌈김치를 맛보게 되였다.

김치는 모양도 류다르고 맛 도 류다르다는 소문이 퍼지 기 시작하였다.

앓는 사람이나 입맛 잃은 사람이 생기면 고분이네 보 쌈김치덕을 보군 하였다. 거 기다가 멀고 가까운 곳을 가 리지 않고 쉼없이 나다니는 현화사스님들의 혀에 실려 보 쌈김치와 고분이에 대한 소문 이 날개돋힌듯이 퍼지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반반하게 차려입은 한 사 나이가 고분이를 찾아왔다.

고분이를 마당으로 불러낸 다음 이리저리 살피더니 《네 가 내 말만 잘 들으면 팔자 를 고치겠는데 어떠냐? 나를 따라 개성으로 나가지 않으 러느냐?》 하고 물었다.

이런 물음에 대답할만큼 생각이나 마음을 그쪽으로 움직여본적이 없었던 고분이 는 그저 옷고름만 비틀뿐 대 답이 없었다.

《허허… 네가 서른 한창 나이에 요행 만난 기회를 놓 치고나면 후회를 해도 쓸데 그림 김 윤 일

그후부터 고분이가 담근 없느니라. 재가를 하라는것 도 아니고 목을 팔라는것도 아니요, 돈을 벌어서 잘 살 아보라는것인데 무엇을 주저 한단 말이냐?》

그 사람의 말인즉 자기가 소개하는 곳에 가서 부엌일 을 맡아하면 팔자를 고치게 된다는것이였다. 그 말이 사 실이여서 제 한몸만 부엌일 에 내맡기면 살길이 열린다 니 싫다고 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고분이의 속마음을 넘겨짚 은듯 그 사람은 비좁은 행랑 이라도 한칸 마련해줄터이니 어머니를 모시고가서 봉양하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싫다 할 리유가 없었다.

며칠후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고분이의 어머니와 얼마 되지 않는 가산을 소달구지에 꿍져 싣고 개성장안으로 향하였다.

(2)

개성 남쪽성벽을 등에 지

고 길게 누운 룡수산밑 골 짜기는 물이 맑고 그윽한데 다가 수림이 울창하여 피서 유흥터로 이름난 곳 이다.

골짜기어귀에서부터 좌우 에 줄을 지어 띠염띠염 들어 앉은 청석기와집들과 초가집 들은 거의다 대문간에 붉은 등초롱을 내다걸고 술과 음 식을 파는 집들이였다.

그래서 홍등가라고 불리우

방에 짐을 풀었다. 《음식맛은 녀인의 손맛이 란 말이 있으니 네가 부엌 일을 맡아하면 우리집 음식 맛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끓 일것이고 더우기 네가 담그

고분이는 이 홍등가에 자

리잡은 한 기와집에 들어가

부엌에 잇달린 자그마한 행랑

는 김치는 천하일미라 하는 데 한번 재간을 부려서 소문 을 내보자.》



는 깊고 으슥한 이곳이 개 성장안 량반부자집 난봉자식 들로부터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군, 활량패, 건달군, 거 간군들과 돌팔이의원, 점쟁 박수무당, 뚜쟁이들이 밤에 낮을 이어 욱실거리는 곳이였다.

이것이 이 집 주인령감이 고분이에게 한 첫말이였다. 그 말의 뜻인즉 고분이가

담그는 보쌈김치로 돈벌이를 크게 해보겠다는것이였다.

그해 가을부터 고분이는 김치담그는 일에 몸을 적시 였다. 감새가 마땅치 않아

늘 마음썩여왔으나 이제는 그런데 마음쓰지 않아도 되

늘 쓰던 우거지배추대신에 허연 비게같은 통배추와 방 치같은 무우에다 마늘, 생 강, 백하젓과 사과, 배, 밤, 대추, 은행… 없는것이 없

김치국물도 소뼈를 삶아낸 물이였다.

보쌈의 크기도 넓은 잎. 좁은 잎에 크게도 싸고 작 게도 싸서 꺼내 쓰기 편리하 게 하였으며 크고 깊은 오지 독 대여섯개가 넘쳐나게 해 넣고 두툼한 벼짚방석뚜껑을 꼭 덮어서 광방에 주런이 세 워놓은 후 북데기를 덮어 찬 바람을 막아주었다.

보쌈김치가 맛들었을쯤되는 그해 초겨울 어느날이였다. 대문밖에서 《여봐라, 대 감님 행차시다!》 하는 대문

지기의 째는듯 한 목청이 들

려왔다. 아따, 무슨 바람이 불어 한양에 계신 대감님행차를 송도 막바지골 홍등가로 등

둥 떠밀어왔나?

주인령감이 짚신도 발에 제대로 꿰지 못한채 대문간 에 나가 대감행차의 전배하 인을 맞아들인다, 지저분한 안마당을 치운다, 방을 낸 다 하며 야단법석을 벌려놓 았다.

스의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사진, 그림을 받쳐 통속적으 **들》**(2∼4살), **《**말배우기시 로 알기 쉽게 서술되여있다. 도서는 용감성과 민첩성의 상징인 스키타기를 즐겨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스키애호가

과 스키장설비들 그리고 왁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 한편 새로 출판된 어린이 지능교육도서들도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들과 스키를 처음 배우게 되

는 근로자들,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이 따붙이기놀이를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 작수행과정들이 그림과 함께

영된 내용으로 개작되면서 제목도 《배노래》로 되였다. 1978년에 민요 《배노래》 는 현시대 어로공들의 보람

찬 로동생활을 반영한 내용 가르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해 으로 새롭게 수정보충되고 **민요해설**

제목이 《바다의 노래》로 나가는듯 한 생동한 인상을

고쳐졌다.

민요는 세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비교적 규모가 큰 성

다를 정복하기 위한 어로공

같은 여러가지 수법을 적 극 활용하여 생동하면서도 세련된 시형상을 창조하고

파도 출렁이는 바다로

민요 《바다의 노래》는 진 실하면서도 생활적인 시적형

겨울철에 유지하려면

겨울에는 피부가 줄어들고 땀선과 피줄이 좁아져 피순 환과 물질대사기능에 장애를 준다.

호흡기계통과 심장혈관계 통 등 여러 계통의 기능도 낮아진다.

추위에 단련되지 못한 사 람들은 상기도감염이나 폐염 을 비롯한 호흡기질병에 쉽 게 걸린다. 그외에도 겨울에는 위병,

방광염, 콩팥염 등 여러가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전 에 앓던 병이 도질수도 있다.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물질의 분해과정이 다른 계절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는것

이 중요하며 음식은 덥혀 먹

는것이 좋다.

르는 말.

약간 높이는것이 좋으며 더 운 음료를 자주 마시는것이 좋다. 음료에서 나오는 더운 김 은 입안점액의 분비를 촉진

시켜 호흡기계통이 건조해지

는것을 방지하며 병견딜성을

겨울철에는 방안의 습도를

높여준다. 겨울철에는 홍차, 록차 등 을 마시는것이 좋은데 음료 가 뜨거울 때는 고뿌에서 주 먹 하나 떨어진 위치에 코를 대고 더운 김을 들이마시다 가 조금 식은 다음에 마시는 것이 좋다. 연구자료에 의하 면 록차에는 돌림감기비루스 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

다고 한다. 겨울철에 밖에 나갈 때는 보 온대책을 잘 세우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0

는 말.

◆ 한번 보면 초면이요 두 번 보면 구면이다. 붙임성이 아주 좋아서 사 람을 잘 사귀는것을 이르

는 말. ◆ 숭늉에 물란 맛이다. 사람이 매우 싱거운것을 놓고 이르는 말.

아무런 재미도 없음을

라도 서방님비위를 못 맞 춘다.

◆ 노죽이 방치같다.

성미가 몹시 까다로와서

매우 심하게 노죽을 부 리는 모양을 비웃어 이르

◆ 고추장단지가 열둘이

비위를 맞추기 매우 어려운 사람을 두고 이르던 말.